

반년이 지나 돌아보니, 배움보다 사람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2026년 1학기가 끝났습니다. 종강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벌써?"였습니다. 입학식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학기가 지나 방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명예도민석사과정은 제게 새로운 시작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연장선이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명예도민학사과정을 다니며 배우고, 웃고,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석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학사과정을 마칠 때만 해도 '여기까지도 참 잘했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선택은 참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석사과정이 시작되니 분위기는 또 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주와 포항, 두 지역에서 학사과정을 마친 분들이 한 교실에 모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낯설었습니다. 학사과정에서 함께했던 얼굴보다 처음 만나는 분들이 더 많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낯섬은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달랐기에 같은 주제를 이야기해도 서로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그만큼 배움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느새 지역이라는 구분보다 같은 석사과정 동기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총무라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기꺼이 맡아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돕고, 자치활동을 계획하고, 행사 일정을 조율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챙기다 보니 어느새 한 학기가 지나 있었습니다.

총무를 맡으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는 강의실 안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움직여야 모두가 편안하게 배우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당황하기도 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책임감도 배우고, 배려도 배우고, 사람과 함께 일하는 방법도 다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혼자서 한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학생회 임원들과 동기들이 기꺼이 손을 보태 주었고, 교수님과 관계자분들께서도 늘 든든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총무라는 직책은 부담이기보다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다양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역과 문화, 인문학, 미래 사회와 인공지능까지 폭넓은 내용을 접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즐거움만큼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사진을 좋아합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같은 풍경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빛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장면이 됩니다. 이번 한 학기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설렘으로 보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고, 종강을 맞은 지금은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배운 강의 내용보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쉬는 시간에 나눈 대화, 현장학습에서 함께 걸었던 길, 수업이 끝난 뒤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큰 배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잠시 여름방학입니다. 방학은 수업만 쉬는 시간이지 배움까지 멈추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다시 만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의 학사과정과 이번 반년의 석사과정을 거치며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책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더 깊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또 어떤 새로운 만남과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함께한 모든 동기들과 교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은 달력으로는 짧지만,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경험하고,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